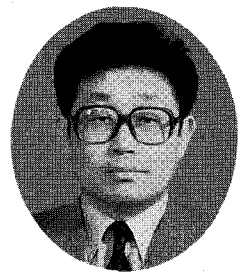


쌀농사의 경제성과 사회

환경영향 적고 영양분
스스로 취하는 '경제적작물'
'식생활 差' 가 미치는
사회적영향 감탄스러워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최근 통계청(統計廳)이 발표한 통계자료 가운데 쌀소비량에 관한 데이터가 눈에 띈다. 통계 계속 70년만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 100kg이 깨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102.4kg이었는데, 1년 후인 98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3.2kg이 줄어든 99.2kg이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1960년대의 일본이나 1980년대 초반의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쌀소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감소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의 '쌀 입지' 흔들흔들

국민 1인당 쌀소비량 100kg이 깨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식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쌀의 위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은 쌀과 밀, 콩이다. 이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량으로 보면 약 60%를 넘고 나머지 20% 정도가 밀, 그리고 나머지 20%가 여러가지 잡곡들이다. 이와같이 식생활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쌀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쌀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주식이다. 동서양을 쉽게 구분한다면 동양은 쌀문화로서 양은 밀문화 또는 육식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쌀은 밀과 비교하여 영양성분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옛어른들이 보리밥이나 빵을 먹으면 배가 쉬고파진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열량으로 보면 쌀과 밀 모두 엇비슷하다. 쌀

100g이 갖는 열량이 352kcal인 반면 밀은 359 kcal이다. 쌀에는 철이나 나이아신(Niacin)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밀에는 쌀에 보이지 않는 회백질과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쌀과 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를 논하는 것은 난형난제(難兄難弟)이다. 그러나 쌀은 밀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한 식량이다.

첫째 쌀은 연작피해가 적은 작물이다. 일본 농사시험장 실험결과에 의하면 쌀을 무비료연작(無肥料連作) 재배했을 경우 전년도 수확량의 70%를 수확할 수 있는 반면 밀은 그 절반 수준인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벼농사의 역사는 어느 농사보다도 길고 또 쌀은 인구가 많은 동양사회를 부양해 오던 수단이었다. 둘째 쌀농사는 잡초 발생량이 발작물에 비해 적다. 농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담수(澁水)상태에서는 면적 90 cm²당 건중물(乾重物)로 9.70g의 잡초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밭에서는 담수의 5배가 넘는 57.85g의 잡초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잡초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물속에서만 자라는 수생잡초와 물속에서는 자랄 수 없지만 물을 좋아하는 습생잡초,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건생잡초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논에서 자랄 수 있는 잡초는 수생잡초에 불과하다. 습생잡초나 건생잡초는 자랄 수 없다. 이에 반해 밭에서는 건생잡초가 자랄 뿐만 아니라 비가 온 뒤에는 습생잡초까지도 번성하게 된다. 따라서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가 잡초발생이 많다는 이야기다. 셋째 논농사는 속성상 물의 흐름을 통해 풍부한 영양을 스스로 공급

받는다. 논농사는 물을 이용하는 농업이다. 물이용 가운데 특히 물의 흐름을 이용한다. 물은 흐름을 따라 논에까지 유입되는 동안 주변의 영양물질을 논에까지 옮겨 공급한다. 작물생육에 필요한 마그네슘이나 망간과 같은 미량원소(微量元素)까지도 공급한다. 따라서 벼농사는 자연적으로 천연비료의 공급을 받게 되고 무비료연작의 경우에도 이러한 영양물질 덕택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성을 갖는 쌀은 동양사회에 정착하여 동양사회의 많은 인구를 부양해오면서 동양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먼저 쌀은 미곡상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직업에 대한 귀천(貴賤)이 있었다. 여러 직업 가운데 특히 정육점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의 하나였다. 이에 비해 미곡상은 지역에서 많은 돈을 주무르며 권세를 누리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유럽사회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정육점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권세를 부리는 직업이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정육점들의 동업조합(同業組合)이 여타 동업조합을 물리치고 높은 세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미곡상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정육점은 명예롭고 전통있는 직업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같은 직업의 귀천 현상은 바로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식생활의 차이에서 유래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고기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주식은 쌀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식을 다루는 직

업이 대우를 받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신장·공업발달' 주식따라 달라

한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사회는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권(女權)운동의 출발은 동양이 아닌 유럽이다. 쌀을 먹는 지역이 아닌 밀을 먹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은 여성들에게 많은 시간과 여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여가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여권신장에 더 적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빵과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가운데 어느 것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여가를 부여할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빵이다. 쌀밥과 빵 사이에는 수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율(含水率)의 차이가 있다. 밀로 만든 빵은 매우 적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쌀로 지은 밥은 빵의 두배 이상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빵의 함수율이 30% 내외인 반면 쌀밥의 함수율은 70%이다. 따라서 함수율이 높은 쌀밥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분이 증발되어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쌀밥은 저장성(貯藏性)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지어는 밥을 오래 두지 못하는 관계로 밥짓는 일을 시시때때로 반복해야 했고 또 여성들은 밥짓는 일에 온종일 메달려야 했다. 이러한 조건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여성들의 시간적 여유를 제약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했지만 밀을 원료로 하여 빵을 먹는 서구여성들에게는 밥짓

는 일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참여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과 밀을 원료로 하여 빵을 먹는 지역 사이에는 공업의 발달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은 쌀을 가공하지 않은 채 알곡 그대로 밥을 지어 먹는다. 다시말하면 입식(粒食)이다. 그래서 가공을 위한 공업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에 비해 밀의 경우에는 밀을 알곡의 형태로 먹지 못하고 가루로 가공하여 빵을 만들어 먹는다. 이른바 분식(粉食)이다. 밀은 소화흡수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빵을 먹는 민족들의 식품제조 과정은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이 빵은 밀의 분쇄과정과 빵을 굽는 가공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식생활에 관련되는 식품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가 있었다. 특히 가공과정에는 엄청난 노동력, 특히 노예들이 필요했던 고로 동력의 발달도 함께 촉진되었다. 그 연유로 유럽사회는 아시아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공업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와트(J.Watt)의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식품공업의 기술발달이 유럽의 식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쌀밥과 빵을 먹는 식생활의 차가 사회적으로 여러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주식인 쌀소비의 감소는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쌀소비의 감소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약정보**